

식민지 주체의 정체성 모색과정에서 나타난 제임스 조이스의 탈식민주의적 문화관

정 성 회

I. 서론

제임스 조이스 문학세계의 특징은 그의 아방가르드적인 실험성에 있다. 그러나 그의 동시대 작가들과 비평가들은 그의 아방가르드적인 실험성에 내포된 정치적인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의식의 흐름 기법”과 신화적 수법에 초점을 맞추어 조이스를 아일랜드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모더니즘 문학 작가로 정전화 시켰다. 모더니즘 문학의 대부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와 엘리엇(T. S. Eliot)은 『율리시즈』의 구조적인 틀로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조이스가 그의 작품에서 신화적인 수법을 사용한 주된 목적은 20세기 전환기 현실에서 고대 신화의 이상적인 가치체계를 다시 모색해서 분열된 서구 정신을 다시금 통합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시도를 모더니즘 미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엘리엇을 이어받고 있는 신비평가들도 작품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는 구조와 형식을 분석해 나가면서,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조이스의 작품을 모더니즘 문학의 정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이스의 작품들이 유기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신비평가들의 인식과 다르게 조이스의

실험적인 기법들은 통합성을 깨뜨릴 정도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율리시즈』 후반부에서는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서술기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유기적인 구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신비평의 방식으로 『피네간즈 웨이크』를 설명하기에는 그 근본 원칙에서부터 어긋나 있다. 신비평의 방식으로 『율리시즈』를 분석한 연구서는 골드버그(S. L. Goldberg)의 『고전적 기질』(*The Classical Temper*)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고전적 기질”이란 조이스 문학의 가장 중심된 상상력의 세계로 “영적 완성과 물개성적 질서”라는 세계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형식적 “구성의 방법”을 신화적인 수법에서 찾고 있었다(Goldberg 32). 그런데 신비평가들은 조이스의 문학세계를 모더니즘 문학의 미학적 입장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여서 상대적으로 조이스 문학의 개별적인 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왔다. 즉 인본주의적 보편성의 주제로 조이스의 문학세계를 해석함으로써, 아일랜드 작가로서 조이스가 그의 작품에서 제기한 정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비평과 정반대되는 접근방식을 취하는 맑시즘 문학 비평에서도 조이스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조이스의 실험성을 탈정치적으로 파악하려는 맑시즘 비평가들은 조이스가 사용한 “의식의 흐름”기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맑시즘 비평가들에게 있어서 조이스의 이런 기법은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키고 개인의 내면의식에만 몰두한 모더니즘 미학의 전형적인 표현 양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맑시즘 비평가들은 조이스 문학이 생산된 아일랜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문명의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역사 인식에서 그의 작품을 다루고 있어 역사적인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조이스의 초기 연구가 간과하였던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조이스 문학이 생산될 수 있었던 아일랜드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하는 데서 참다운 조이스 연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조이스 연구의 문제점이 1980년대의 탈구조주의 비평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었고, 90년대부터 시작된 탈식민주의 비평에서는 조이스 연구에서 미흡했던 점이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멩가니엘로(Dominic Manganiello)는 『조이스의 정치학』(*Joyce's Politics*) (1982)에서 신비평의 탈정치적 연구에 도전해서 조이스의 정치적 관심과 성향이 작품에 끼친 영향 관계를 분석해나갔다. 멩가니엘로는 작가의 개인적인 삶과 그의 생산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공동사회의 현실이 예술가의 삶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고 보았다(Manganiello 201). 망가니엘로는 조이스의 정치적인 입장이 중립적인 민족주의로, 아일랜드의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을 거부하고, 의회주의를 원했다고 본다. 엘먼(Richard Ellmann)도 조이스의 정치와 미학은 하나이며, 조이스에게 있어서 글 쓰는 것은 자유로워지려는 정치적 행위이며, “교회와 국가라는 두 지배자에게 노예가 된 자기 민족의 해방”을 목적으로 썼다고 말하였다(Ellmann 9). 더피도 『율리시즈』가 쓰여질 당시에 아일랜드에서는 반란과 폭동, 반 게릴라 전쟁이 일어났으며, 영국이 아일랜드 독립에 서명하기 한 달 전에 『율리시즈』가 출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율리시즈』는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책이라고 말한다(Duffy 2).

그러므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성장한 조이스를 혁신적인 언어 실험을 한 선구자로서만 정전화시킨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략이다. 더욱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외설적인 작가로 비난되더니, 조이스가 죽은 뒤에 갑자기 탈정치적이며, 미학론에만 치중한 작가로 규정된 것은 모더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이스가 살던 당시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체제아래서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영국인들이 신교도와 영국 연합자들에게 경제적 우선권을 주고, 아일랜드 가톨릭 교인들에게 경제적 제약을 가하게 되면서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은 극대화되었다. 따라서 아일랜드도 식민지 지배로 고통 받는 제 3세계 국가처럼 전략하였다. 한편 식민지 사회는 정복자와 원주민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자라는 권력의 계층구조로 구성된다. 식민지 사회 내에서 이러한 상하 계층구조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식민지 피지배자의 모든 생활과 의식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파농은 그의 저서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에서 식민지 지배아래서 나타나는 피지배인 집단과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식민지 사회에서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의 문화를 왜곡시켜서 그 가치를 부정하거나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복자들은 문화가 부재하거나 열등한 원주민 사회에 자신들의 우월한 문화를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킨다(Fanon 236). 따라서 식민지 원주민 사회로 이식된 제국주의 문화 속에서 식민지 원주민이 겪는 가장 심한 심리적 갈등은 정체성 분열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원주민이 겪는 정치적, 문화적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은 무엇일까? 문화적 정체성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도 동시에 획득되는 부산물이 아니다.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제 3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인 독립과 문화적인 독립이 항상 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길은 식민지 시대나 후기 식민지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식민지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인 원주민들의 자생적 저항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원주민의 저항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길이다. 따라서 식민지 원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제국주의 권력에 저항하는 첫 작업이 된다. 이러한 작업이 바로 민족주의 운동의 한 양상이다.

한편 파농은 식민지 지배아래 원주민 사이에 민족문화가 형성되는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는 제국주의적인 권력과 문화에 동화되는 단계이고, 둘째는 토착문화를 기억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해 회의가 오고, 셋째로 토착문화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쳐 식민지 원주민은 독립투쟁의 단계로 발전한다. 파농은 진정한 예술가가 취해야 할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과거의 고착화된 껍데기를 벗고 리얼리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Fanon 222).

조이스 문학에서도 파농이 제기한 식민지 주체의 정체성 분열의 문제와 극복의 책략이 중심 주제로 부각된다. 특히 조이스가 성장하던 19세기 후반에 아일랜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다. 따라서 조이스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은 그의 개인적인 전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당시에 아일랜드의 정치적 지도자인 파넬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아일랜드 자치법안(Home Rule) 문제를 어린 조이스도 아버지를 통해 듣고 알고 있었으며, 예이츠를 중심으로 문인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문예부흥도 대학 사회에 널리 유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예이츠를 비롯한 대다수의 문인들이 참여하는 아일랜드 켈트 문예부흥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것이 과거 지향적이며 문화적인 폐쇄성을 부추켜서 식민지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조이스의 모색방법은 복잡하다. 그렇다면 조이스가 인식하는 식민지 아일랜드의 현실은 무엇이며, 또 이러한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고 문화적,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II. 식민지 주체의 갈등과 극복책략

식민지 주체들의 갈등과 마비적인 상황이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보여지고 있다면, 조이스가 나이가 들어서 쓴 『율리시즈』는 앞 작품에서 제기한 모호성에 대해서 작가가 해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이스는 주인공 스티븐을 『율리시즈』에서 다시 등장시키고, 또 다른 등장인물인 유대인 블룸을 창조하여 스티븐과 병행시킨다. 조이스는 두 인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노출시키면서 그들의 갈등과 저항방식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1. 스티븐 디덜러스: 하위주체의 도전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오는 주인공 스티븐은 정치적인 예술이 문화의 각 층까지 확산되어서 식민지 원주민의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스티븐은 제국주의 권위에 무감각하게 순응하지 않고 도전한다. 클롱고우즈 학교시절에 돌란 신부의 부당한 매질에 항거해서 교장선생님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태도나 다른 동급생들이 이단자로 분류하는 자유분방했던 바이런을 자신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점, 또 수학시간조차 빨강 장미와 파란 장미 그룹으로 나누어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상황에서도 스티븐은 이 세상 어느 곳인가에 독립된 아일랜드와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장미”(Portrait 12)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스티븐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 마지막 부분에서 “오, 인생이여! 나는 경험의 실현에 몇 백만 번 부딪히기 위해 떠나며, 나의 영혼의 대장간 속에서 나의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버리기 위해 떠나가노라”(Portrait 252-53)라고 말한다. 여기서 조이스는 파넬의 정치적인 실각과 함께 가톨릭과의 대립, 언어에 스며있는 제국주의 문화예술, 켈트 문예부흥 운동이라는 민족주의 담론의 한계를 느끼고, 유럽으로의 망명등을 통해 제국주의 억압에 대처할 저항방법을 암시한다.

한편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이 식민지 하위주체로서 제국주의 지배에 도전

하는 것은 영국인 헤인즈와의 대화를 통하여 보여지고, 또 영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배반적인 기질을 보이는 멀리건과의 갈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친영파인 디지 교장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텔레마코스」장은 자치권이 없는 식민지 종속인의 갈등을 드러내고 권력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스티븐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보를 받고 유럽에서 아일랜드로 돌아와 마텔로 탑에 잠시 머문다. 그러나 스티븐은 마텔로 탑의 집세를 내면서도 집 열쇠를 멀리건에게 빼앗기고, 또 자신의 집마저 영국인(헤인즈)과 배반적인 특성을 보이는 원주민 협력자(멀리건)에 의해서 점령당한다. 마텔로 탑 안의 이와 같은 상황은 마치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자치권을 빼앗긴 상황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이 멀리건에게 “말해 봐, 멀리건, . . . 헤인즈는 이 탑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 작정이지?”(U 1.47-9)라고 하는 말은 자치권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며, 영국 지배로부터의 자치권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곳이 강제적인 군사 점령지라는 사실은 군사 방어지로서 마텔로 탑의 역사에 의해서도 암시된다. “탑의 동그런 포상”(U 1.9) 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멀리건이 “꺼지란 말이야”(U 1.17) 라는 조롱에서도 암시된다. 마텔로 탑이 지어지게 된 배경에도 전쟁과 침략의 역사가 관련된다.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는 1759년에서 1906년까지 마텔로 탑을 영국 해변을 따라 짓도록 하였고, 1803년에서 1806년까지는 아일랜드에 프랑스 군대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짓도록 하였다. 마텔로라는 이름도 1794년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군인이 코시카(Corsica)의 마텔로 갑곶에서 따온 것이며 그곳에 비슷한 탑이 있다(Thornton 22).

스티븐이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는 반면에 멀리건은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영국인과 결탁하고 조국을 배반할 수 있는 자다. 멀리건은 영국인의 가치관을 모방하여 아일랜드를 “그리스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리스화하자”라는 말은 매튜 아놀드가 『문화와 무정부』(*Culture and Anarchy*)에서 영국인들의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 한 말이다(Gifford & Seidman 8). 매튜 아놀드는 문화적인 결여가 인간성의 결여를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야만인들은 교육시켜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멀리건의 “그리스화”라는 말에 대처하여 스티븐은 “신이교주의”와 “우리들 자신에게”, “옴팔로스”로 경쟁하고, 도전적인 캘리버처럼 “헤브라이적”이고 아일랜드적이며 야만적인 타자성으로 대처한다. “우리들 자신에게”란 스티븐이 아일랜드 민족주의 그룹인 신페인당¹⁾의 이름을 생각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스티븐은 제국주의자를 대표하는 영국인 헤인즈에게 적대감을 보인다. 헤인즈는 켈트어와 켈트 민속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자다. 헤인즈가 아일랜드의 민속을 연구하고 켈트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제국주의자의 허식에서 나온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문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일랜드는 원시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양을 열등한 곳”(Said 1-2)으로 정전화 시키는 것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의 언어나 문화까지도 지배하여 왜곡시키려는 자다. 영국인 헤인즈는 식민지 지배자로 “총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이고, 검은색 표범을 쏘는 것에 대해 신음하고 헛소리하는 영국나라다”(Cheng 152). 헤인즈는 테니스 셔츠를 입었는데, 테니스는 영국 신사들이 즐기는 스포츠로서 스티븐이 “신사 시인 론 테니스”(U 3.492)이라고 말할 때도 신사 문화에 속하는 것이 암시된다. 스티븐은 옥스퍼드의 “귀머거리 정원사조차도 매튜 아놀드 얼굴의 가면을 썼다”(U 1.173)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티븐은 영국 문화 개념을 손질이 잘된 잔디, 테니스와 매튜 아놀드, 옥스퍼드의 인습적인 면으로 상기한다(Cheng 154).

헤인즈는 “줄루족에게 설사약을 팔았거나 또는 무슨 경찰 놈의 협잡인지 뭔지를 해서 돈을 번 사람”(U 1.156-57)의 아들인데 아버지처럼 헤인즈도 아일랜드에 와서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 착취를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멀리건이 영국의 인종주의에 관대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을 원주민 “캘리번”으로 묘사하는데 너그러운 반면에, 스티븐은 영국인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분노를 일으킨다. 멀리건에 대한 스티븐의 반응에 따르면, 거울은 “아일랜드 예술의 상징”이며 “하녀의 깨진 거울”(U 1.146)이다. “하녀의 깨진 거울”은 캘리번의 노예 신분이 되도록 강요된 아일랜드 사람들의 분개심을 나타낸다. 그런데 스티븐이 “하녀의 깨진 거울”이라고 말하자 멀리건은 또 다른 의미있는 반응을 보인다.

하녀의 쪼개진 거울이라! 그 얘기를 아래층의 저 옥스퍼드 녀석한테 말해서 1
기너를 녀석에게 줄라보게. 그 녀석은 돈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고 자네는 신

1) 신페인당은 1904년에서 1905년에 아서 그리피스(Arthur Griffith)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그룹으로 “We Ourselves” 혹은 “By Ourselves”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아일랜드 독립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Thornton, 15)

사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 . . 정말이지, 낚치, 만일 자네하고 나하고 함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일랜드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그리스화 하는 거지 (U 1.154-58)

멀리건은 스티븐의 말을 듣고 인종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수집할만한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에서 기뻐한다. 멀리건은 제국주의 민족학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지방색이 있고 토속적이며 채치가 넘치는 말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팔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Cheng 153). 원주민 지식인으로 아일랜드에 대해 배반적인 특성을 보이는 멀리건의 태도는 우유 배달하는 노파가 정복자에게 높은 머리를 조아리며 비유를 맞추려는 태도와 통한다. 스티븐은 우유배달 노파가 아일랜드의 참된 민족주의자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멀리건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심을 보이는 태도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비적인 상황을 본다. 우유배달노파는 “그녀의 정복자와 그녀의 경쾌한 배신자를 시중드는 저급한 형태의 불사조, 그들 양자의 공동의 첩”(U 1. 405-6)의 역할을 한다.

한편 스티븐이 멀리건에게 디지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대가로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자 멀리건은 그것을 “The School Kip”(U 1.293)이라고 부르면서, 스티븐이 지배자의 하인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스티븐이 얼스터 사람인 디지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직업에 몸을 팔고, 특권 계층의 아이들에게 영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 멀리건이 “킵”(Kip)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다. 멀리건은 스티븐의 임금이 4 파운드라는 말을 듣고 스티븐에게 1 파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반짝이는 금화가 네 개라, . . . 네 개의 전능한 금화”(U 1. 296-97)라고 말한다. 스티븐이 주권자에게 복종하고 영국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돈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멀리건은 금화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멀리건은 스티븐이 영국 제국주의자의 하인임을 “대관식”에 관한 노래를 불러 인식시킨다. “대관식 날”이란 말은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 축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는 날에 대한 속어다. 사람들은 화폐의 이름(일 파운드, 혹은 25펜스)으로 임금을 받았다(Gifford & Seidman 19).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왕이 통제하는 돈에 스스로 복종하였음을 암시한다.

헤인즈와 스티븐의 대화에서도 정복자의 자만심과 식민지 종속인의 갈등이

드러난다. 헤인즈가 스티븐에게 “자네는 자네 자신의 주인인 것 같다”(U 1.636-37)고 말하자 스티븐은 헤인즈의 논평을 거부하고 자신은 제국주의자들의 하인이라고 말한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놈이야’하고 스티븐이 말했다. 영국인과 이탈리아인 말이야. . . . 대영제국, 하고 스티븐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리고 신성 로마 가톨릭 사도 교회라네. (U 1.638-44)

스티븐이 두 지배자의 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 빅토리아 여왕으로 구체화된 영국을 말한다. 스티븐은 “늙고 질투심 많은, 미친 여왕.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U 1.640)라고 명상한다. 「태양신의 황소들」에서도 스티븐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왜 이방인을 끌어드려 속박을 당하게 됐는지 한탄한다. “왜 그대는 나의 눈앞에서 이런 몹쓸 짓을 하여 설사약 장수를 위해 나를 걷어 차 버리고 그대의 딸들이 호사스럽게 동침한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나를 부정했느냐?”(U 14.371-75) 그러나 헤인즈는 스티븐이 식민지 하위주체로서 겪고 있는 고뇌에 대해 제국주의자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역사적인 책임으로 돌린다. 헤인즈는 식민지 억압아래 갈등을 느끼는 스티븐에게 “그 말 잘 알겠어, . . .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영국에서도 우리는 자네들을 오히려 불공평하게 대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네. 잘못은 역사에 있네”(U 1.647-49). 라고 말한다. 헤인즈는 아일랜드의 불행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약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역사적인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이 받아야 할 양심의 가책을 회피한다. 헤인즈는 19세기에 패배했던 영국적 민족 우월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젖어 있다.

물론 나는 영국인이야, . . . 그래서 한 사람의 영국인으로서 나는 느끼네. 나의 조국이 독일계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걸 나도 보고 싶지는 않아. 그것은 현재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네. (U 1.666-68)

헤인즈의 위와 같은 태도는 영국인/ 켈트족, 백인/흑인, 남성/여성, 우월한 자/ 열등한 자로 나누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사이드도 제국주의자들이 미개국에서 수세기 동안 “범죄자”처럼 행동하며 약탈했다고 말한다(Said 12). 스티븐은 헤인즈의 자만심에 가득찬 소리에 제국주의자들의 허

식을 느끼고, 헤인즈가 아일랜드 사람들을 “거친 아일랜드 사람들(wild Irish)”로 정형화시키며 미소짓는 것을 본다. 스티븐은 헤인즈를 보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황소의 뿔, 말의 발굽, 색슨인의 미소”(U 1.730-2)를 생각하고, “찬탈자”(U 1.743)라고 생각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역사를 과거에 벌여졌던 일로만 보기에는 그 흔적이 식민지 종속인들에게 각인되어있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해변을 거닐며 아일랜드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명상하다가 우연히 만난 개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부러움을 표한다. 스티븐은 개에게 “너는 다른 사람의 지배자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U 3.295-6)고 생각한다. .

그런데 식민지 지배 아래서 원주민 지식층은 정복자들에 대해서 상이한 두가지 형태로 반응한다. 멀리건처럼 헤인즈에게 아첨하고, 헤인즈가 좋아할 만한 것을 제공하면서 돈을 울궂내는 식민지 원주민이 있는가 하면, 스티븐처럼 헤인즈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느끼고, 식민지 하위주체로서 갈등하고 고뇌한다. 스티븐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아래서 경제적인 꺾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아일랜드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주하려고 떠났던 킹즈타운 선창을 “실망을 준 다리”로 생각하고, 이 다리는 스티븐에게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을 일깨워 준다.

스티븐은 「네스터」장에서 친영파이며 복부 아일랜드 신교도인 디지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클론고우즈나 달키의 소학교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정복자의 지배 문화 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그리스와 로마 역사로 피로스와 줄리어스 시이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영국 시인들 중에서도 밀튼의 「리시다스」를 가르친다. 게다가 헐링(hurling)이라는 아일랜드 스포츠 대신에 크리켓 게임(cricket)을 주로 한다. 한편 영국 정복자들을 모방하려는 디지 교장의 친영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방 분위기에서도 보여진다. 그의 방 벽로 선반 위에는 웨일즈의 황태자인 엘버트 에드워드의 초상이 있고 사방에는 말들의 상들이 진열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왕권과 왕의 말들, 헤이스팅 경의 격퇴,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쇼토호 등은 에드워드 7세가 말 애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은 제국주의 권력을 상징한다. 따라서 영국은 아일랜드 가톨릭 교인들이 권력과 지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5 파운드 이상의 말을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다(Cheng 166). 스티븐은 자신이 달키 소학교에 온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디지 교장의 방에서 정체된 모습을 느끼고 “똑같은 방과 시간, 같은 지혜”(U 2.233) 라고 생각하며 이카로스처럼 자신은 마비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할 것을 생

각한다. 그리고 스티븐의 이런 독백은 그의 우울함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스티븐은 더 이상 제국주의자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

스티븐은 디지 교장과 역사 문제를 논의 할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스티븐은 디지 교장의 잘못된 역사관을 재치 있게 공격한다. 디지 교장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 즉 하느님의 현시를 향해 움직이지”(U 2.380-81)라고 말하자 스티븐은 엄지손가락으로 창문을 향해 가리키면서 “저것이 하느님입니다”라고 말하고 “거리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한다. 스티븐에게 역사는 하키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무의미한 목표 정도일 뿐이다. 스티븐은 “역사는 나 자신도 깨어나야 할 악몽”(U 2.377)이라고 말하면서, 디지 교장의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거부한다.

한편 디지 교장의 말과 행동은 영국 연방주의자들의 태도를 대변한다. 그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U 2.395-96)을 주장하면서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스티븐은 신교도들이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오렌지당을 결성하여 영국 왕의 앞잡이가 되어 아일랜드를 배반하였음을 상기한다. 영국 의회가 1886년 아일랜드에 자치권을 주려하자 오렌지당원들은 벨파스트의 오렌지당 요새에서 반자치권 폭동을 일으켰다(Gifford & Seidman 24). 스티븐은 디지 교장의 주장과 상반되게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오렌지당의 약탈과 폭정을 추적해 나간다. 그리고 나서 스티븐은 영국 왕에 대한 오렌지당의 축사를 상기한다.

영광스러운, 경건하고 영원한 기억. 가톨릭 교인들의 시체로 장식된 화려한 아마의 다이아몬드 비밀결사. 마스크를 쓰고 무장을 한 이주민들의 거친 맹약. 검은 북방인과 참된 푸른 성서. 까까머리 반도들은 행복을 한다. (U 2.395-6)

“영광스러운, 경건하고 영원한 기억”이란 말은 아일랜드의 정복자인 윌리엄 3세가 자신들을 가톨릭과 노예적인 삶과 나무 신발로부터 구해주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오렌지당원들의 윌리엄 3세에 대한 찬미가이다. “다이아몬드의 비밀결사”는 1790년에 아일랜드 신교도들이 가톨릭 교인들을 아마에서 내쫓고 몰수지를 북부 아일랜드로 이주한 영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반대해서 결성한 조직이다. 새로운 토지정책으로 인해 땅을 갖고 있던 가톨릭 교인들의 수

가 급격히 줄었다.

스티븐이 제국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스티븐이 「썬어시」장에서 영국 군인인 카아 병사, 콤슨 병사와 대결하는데서 극대화된다. 이들의 대결은 피지배자인 스티븐과 아일랜드에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 군대 사이에 역학 관계를 구체화한다. 스티븐은 두 명의 영국 군인과 만나서 말다툼을 하는데 그들은 스티븐이 시시 카프리를 모독했다고 비난한다. 그러자 술에 취한 스티븐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나의 손님이요. 불청객들이야. 조지 5세와 에드워드 7세를 위하여. 비난 받을 것은 역사라오”(U 15.4370 -72). 그러자 병사 콤턴은 카아 병사에게 스티븐을 때리라고 말한다. 그때 스티븐은 폭력이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이 되지만 자신은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술에 취한 스티븐은 자신의 왕을 모독했다고 싸움을 거는 카아 병사에게 말한다.

자네는 자네의 조국을 위해 죽는 거야. 상상해봐. 난 자네에게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말하는 바야: 나의 조국은 나를 위해 죽어 달라고. 지금까지 쫓 그랬어. 나는 조국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어. 저주받을 것은 죽음이지. 인생만세! (U 15.4471-74)

스티븐은 불륜처럼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저항하지 않는 아일랜드 사람에 대한 잔인한 영국 군인의 폭력은 결국 태양이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영국의 식민지 지배아래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저항해야만 하는 아일랜드 민족들이 폭동의 무기력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Cheng 233-34). 카아 병사가 스티븐을 페니스와 독일에 대한 속어인 “Jerry”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그의 남성적이고, 외국인 혐오주의, 민족적 우월주의가 드러난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분리하였을 때, 서구인들과 반대되는 이질적인 것에는 아일랜드인, 독일인, 보어인, 흑인, 유대인이 들어간다. 스티븐이 아일랜드에 주둔하는 영국 군인들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영국 군인들은 이방인일 뿐이라며 자신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스티븐의 보다 성숙해진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티븐은 술 주장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간접적으로 제국주의 지배에 대해 비난한다. 게다가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며 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멀리건이나 디지 교장과 다르게 스티븐은 자신의 재능을 제국주의자들의 돈에 팔아 넘기는 것을 거부하는 도전정신을 보인다.

2. 리오폴드 블룸: 양가병존적 가치관

조이스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던 미숙한 젊은이 스티븐을 대신하여 『율리시즈』에서 유대인 블룸을 새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처할 만한 보다 원숙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식민지 타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대인 블룸을 등장시킨다. 블룸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더블린 시민들에 의해서 이방인으로 분류되고, 악의 존재로 부정되며, 모욕을 당한다.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블룸에게 보이는 배타성은 영국인 정복자들이 식민지 원주민에게 보이는 배타적인 태도를 흉내낸 것이며, 자신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아일랜드 민족의 정형화, 남성성의 정형화를 벗어난 데서 비롯된다. 패어홀도 조이스가 블룸에게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남성성의 묵시” 세계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분열된 남성 자아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남성적인 공격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스티븐의 “날카로운 철판”(U 1.153) 보다 블룸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새로운 여성다운 남성”(U 15. 1798-99) 으로서, 또 유대인이며 비유대인으로서, 아일랜드 사람이면서 타자로서, 그는 중산층 민족주의의 편협한 상반성을 뛰어넘는다(Fairhall 193-94). 그리고 블룸의 저항방법은 타문화와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파농의 폭력적 저항 방법보다 한 차원 진일보한 바바의 저항방법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블룸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비폭력적 저항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호미 바바는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파농이나 사이드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보았다. 사이드가 식민지 지배자에 대해 분석했다면, 파농은 식민지 종속인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러나 바바는 식민지 분할을 넘어서는 상호 의존과 타협의 가능성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식민적 관계는 타자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모순된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정체성과 입장이 항상 고정되어 양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바바는 “식민적 관계가 차이점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원적이고 모순적인 형태를 띤 신념”(Bhabha 75)이라고 주장한다. 지배자는 자신의 상상속에서 만든 기준으로 ‘교활한 동양인’ 혹은 ‘불성실한 하인’으로 정형화시킨다. 그러므로 바바가 보는 식민지 종속인은 철저히 양가적이다.

야만인인 동시에 가장 유순하고 품위있는 하인이 될 수 있다. 식민지 종속인은 성욕의 화신이자 동시에 아이처럼 순진하다. 그는 신비롭고 원시적이며 천진난만하지만, 그러나 가장 세속적이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자고, 사회적인 권력을 조종한 자다. (Bhabha 82)

영국인 정복자들이 식민지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시선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나 이데올로기를 모방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타자는 “차이를 지닌 주체로서 거의 같아 보이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는 존재다”(Bhabha 86). 그러므로 식민지 지식인이 지배자의 가치관과 교육을 받고 모방하여도 정복자와 식민지 지식인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 한편 유대인 블룸은 다성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이다. 블룸은 “여자 같은 남자”(U 15.1799)의 양성적인 특성을 보이며 종교도 세 번이나 개종하여 종교관도 불확실하다(U 17.542). 네드렘버트는 블룸의 민족적 정체성까지 모호하다면서 블룸을 유대인이라고 할지, 이방인이라고 할지, 아니면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 궁금해한다(U 12.1631-32). 블룸이라는 이름도 그의 이중적인 본성에 맞게 선택되어졌다. 블룸은 유대인 이름으로 꽃을 상징하고, 꽃처럼 절대 필요한 존재를 의미한다. 블룸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편협성을 탈피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Ellmann 362). 찡도 블룸에 대해 “보편적인 관용과 문화적인 다원성”이 혼합된 존재라고 말한다(Cheng 182). 이런 다원적인 특성을 가진 블룸은 식민지 상황에 잘 대처해서 산다. 유대인 블룸은 38살의 광고 외판원으로 아마추어 가수인 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의 틀을 해체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블룸은 아침을 준비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남편이다. 그러나 아들 루디가 낳은 지 11일 만에 죽은 후에, 그는 아내와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해서 10년이 넘도록 그들 부부는 성적으로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오후 4시에 몰리가 그녀의 매니저인 보일란과 블룸의 관계를 가질 것을 알고 피로워하며, 몰리가 보일란과 정사를 벌일 때 침대에서 나는 “징글”소리가 하루종일 블룸의 뇌리 속을 떠나지 않고 모티브로 작용한다. 그러나 블룸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모습은 마비적인 상황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다른 더블린 사람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홍래내기(혼성화 전략)는 “차별대우를 받는 자의 시선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반대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지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전략이다”(Bhabha 112). 이

것은 식민지 종속인이 서구 문화와 텍스트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때 나타난다. 식민지 원주민인 블룸도 지배자들이 부여한 서구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블룸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상황에 대해 민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블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습이나 문화적 차이도 인정하고 호감을 갖기도 한다. 블룸은 디그넬의 장례식에 참가하면서 다른 나라의 장례 관습에 대해 생각한다. 특히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여인이 남편과 함께 화장되는 힌두교 관습인 사티(Sutte)에 대해서 생각할 때, 블룸은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생각과 차이를 보인다. 영국인들은 사티를 야만적이며 이교도적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영국정부는 인도 식민지의 이런 장례 관습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블룸은 무덤까지 그들의 남편을 따라가며 정절을 지키는 과부는 “힌두교를 믿는 과부들”(U 6.548)뿐이라고 말하면서 힌두교를 믿는 과부들을 칭찬한다. 또 블룸은 “하나의 관에 어머니와 아이를 함께 묻는 유대인의 매장 관습”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블룸은 타자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단순하고 편협한 싸이클롭스적인 사고방식을 뛰어 넘을 수 있다(Cheng 176-78).

게다가 블룸은 “만약 우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면”(U 6.836)이라는 가정 아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단순하고 편협한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그의 동료 아일랜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다원적인 생각이고 역지사지의 입장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블룸의 능력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견해도 기꺼이 상상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서구인들이 중국과 아프리카 사람들을 원시인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중국인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교도로 보이기 때문에 개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시키아」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블룸은 그를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한 시티즌과 벌였던 격렬한 논쟁에 대해 상기한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요.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아마 그는 상처를 줄 생각은 아니었을 거야”(U 13.1219-20). 라며 블룸은 시티즌의 입장에서 고려해본다. 블룸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심지어 험담자와 적까지도 이해하려고 한다.

블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티즌의 공격을 받고, 바니 키어넌 술집 사람들

에게도 소외당한다. 그들은 블룸의 말을 가로채서 이야기를 끝맺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과 블룸 사이에 의사소통의 부재를 겪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디그넬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하여 더블린 사람들이 안되었다고 애도하자, 블룸은 디그넬이 고통 없이 죽었으니 제일 좋은 죽음을 맞았다고 말해서 더블린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U 6.303-15). 따라서 블룸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모순 덩어리”이고 “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아일랜드 공동체를 위협하는 인물”(Fairhall 173)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영국의 반유대주의를 모방해서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혈통의 블룸을 이방인 취급하고 타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티즌은 영국인과 벨기에 사람들이 흑인에게 인종 차별하는 것을 애석해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시티즌은 영국인들을 모방하여 블룸을 흑인과 동일시하며 차별한다. 시티즌은 블룸을 “흰눈의 카피르”(U 12. 1552)로, 하인즈는 블룸을 “검은 말”(U 12.1557)이라고 부른다. 검은 얼굴에 “흰눈의 카피르”라는 말은 보어전쟁에 관한 키플링의 시에서 따온 말이고, “검은 말”이란 것은 블룸이 정복자들의 지배를 받는 줄루족이나 콩고 원주민처럼 하찮은 존재로 보인에서 나온 말이다. 존 헨리 맨톤도 블룸을 “검둥이”라고 부르면서 “무엇 때문에 물리가 그와 같은 흑인과 결혼했는가?”(U 6.704-5) 라고 궁금해한다. 당시에 “검둥이”란 말은 흑인과 유대인을 가르치는 속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부색은 문화적, 인종적 차이의 핵심 기표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블룸을 유대인과 흑인으로 보면서 인종적 편견을 보이는 것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반유대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블룸은 “멘델스존도 유대인이었고 칼 마르크스도 메르카 단테도 스피노자도 유대인이었어. 그리고 구세주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부친도 또 유대인이었어. 자네의 하느님도”(U 12.1804-5)라고 말한다.

조이스는 블룸을 통하여 민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블룸은 세계 역사는 비록 박해로 가득할지라도 민족이란 혈통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안에 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광범위한 민족 개념을 주장한다. 블룸은 민족과 언어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티즌과 동료 아일랜드인들은 블룸의 민족 개념에 대해 비웃으면서, 블룸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바니 키어던 술집의 사람들은 블룸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그의 아버지도 헝가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으로 보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니키어던 술꾼들이 블룸의 어머니가 엘렌 히긴즈(Ellen Higgins)로 “아일랜드 가톨릭 혈통”(U 17.536-37)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다. 폐어홀도 바니 키어던 술집 사람들은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한다. 아일랜드의 애국자임을 주장하는 시티즌이 술집에서 하는 일은 아일랜드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등치거나 공짜로 술을 얻어먹는 일이다. 게다가 시티즌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인채 하며 어떤 소작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리고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배를 지지하는 가톨릭 교도인 커닝햄은 시티즌이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정권을 위해 일한다. 크롭프톤도 신교도로 영국의 연방주의를 옹호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일랜드 술꾼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민족 범위에 포함시키면, 블룸은 아일랜드 민족에 속할 수 없다고 본다(Fairhall 174). 시티즌과 다른 아일랜드 사람들이 유대인 블룸에게 보이는 적대감은 인종차별주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보이는 아이러니는 그들이 제국주의 지배의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흑인들과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블룸에게 인종적 편견을 보이고,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경멸적인 차별대우를 한다. 시티즌이 블룸에게 인종적인 편견을 보이는 것은 영국인과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반유대주의 운동을 모방한 것이다. 번즈 경(Sir Alan Burns)은 “인종차별이란 한 인종이 다른 인종에 대해 갖고 있는 근거 없는 증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과거 지향적이고, 편협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 마이클 쿠삭(Michael Cusack)을 모델로 해서 국수주의자 시티즌을 등장시킨다. 마이클 쿠삭은 영국 스포츠 대신에 아일랜드의 Gaelic 축구, 헐링, 핸드볼 같은 것을 부활하자고 주장하였고, 포환던지기의 전 아일랜드 챔피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티즌은 『오딧세우스의 모험』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처럼 편협한 행동을 하고 폭력을 사용한다. 게다가 시티즌은 인종 차별주의자이며 외국인 혐오주의자이고 여성 차별주의자이다. 시티즌이 “그놈들은 참 진절머리나는 것들 이야 . . . 이곳 아일랜드까지 다가와서 이 나라를 빈대로 득실거리게 하다니”(U 12.1141-42) 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국내에 이방인들²⁾이 필요하지 않아”(U

2) “국내의 이방인”이란 에이츠의 극 『캐슬린 니 홀리안』에서 브리지트 질레인(Bridget Gillane)이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노파에게 “당신을 방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자 노파가 대답하기를 “너무 많은 이방인이 아일랜드에 있다”고 대답한다. 그 후 마

12.1151-52)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들 자신의 과오지.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온 셈이지. 그 간부와 그녀의 정부가 색슨 강도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지 뭐야”(U 12.1156-58)라고 격분한다. 그러나 조이스는 영국인의 만행을 폭로하는 시티즌이나 더블린 시민들도 풍자한다. 시티즌은 아일랜드의 문명이 영국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시티즌의 태도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일랜드 민족과 문화를 이상화하고 신성시하는 태도다. 시티즌이 아일랜드의 우수성만을 강조하고, 영국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만 정의하는 것처럼 레너헌도 “영국 놈들을 타도하라! 엉터리 영국을!”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블룸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의 조그만 티끌은 볼 수 있어도 그들 자신의 들보는 볼 수 없단 말이야”(U 12. 1237-38)라고 말한다. 블룸의 말은 산상 수훈에서 예수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남만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왜 너는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티끌을 생각지 않느냐”(마태 7:3)라는 말이다. 블룸은 사랑으로 이웃을 보라고 말한다(Thornton 279). 시티즌의 배타적인 태도와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되는 폭력성은 마치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원주민에게 가하는 폭력과 유사하다.

블룸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다르게 문제를 파악할 때, 개인과의 연관 관계를 떠나 모든 측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자네는 문제의 양면을 보아야해요. 선악에 대하여 어떠한 확고부동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모든 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야, 비록 소위, 우리들 자신의 비참한 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든 간에 스스로 합당한 정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서 조그만 선의는 있는 걸세. 상호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이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상호의 평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이든 폭력이나 편협성은 불쾌하게 여기네. 그 따위 것은 어떠한 것을 달성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저지시키지는 못해요. 혁명도 적당한 분납 계획에 입각하여 일어나야만 하는 거야. 근처에 살면서 다른 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증오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한 것이지, 말하자면 옆집에. (U 16.1094-1103)

이클 질레인(Michael Gillane) 이 그녀에게 묻는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노파가 대답하기를 “나의 나라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이방인은 이 땅에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적들은 오랫동안 “이 방인”으로 불려졌다. (Thornton 154)

조이스는 불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각 질문에서 한 측면 이상을 불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신뢰심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한다. 모든 것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불륨이 폭력을 싫어하는 것은 아내의 부정에도 화내지 않고, 아내의 애인들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보여진다. 불륨은 물리와 실제로 관계를 가졌거나, 가졌다고 생각하는 20여명의 애인들을 마음속으로 살해한다. 이 장면은 오딧세우스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피넬로피에게 청혼을 하고 자신의 성에 들어와 자신의 재산을 축낸 구혼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불륨의 생각에 암살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주의는 결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불륨은 제국주의자들이나 그들을 모방하는 과격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다르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등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이질적인 속성들을 기꺼이 받아들여려고 한다. 불륨은 유대인, 모슬림, 이교도, 힌두교도, 흑인, 아일랜드 사람들이 “보편적인 형제애”속에서 어울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이스는 식민지 주체인 불륨과 스티븐의 정체성 탐색과정을 통하여 계급 차별이 없고, 박애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이며, 협동하는 사회를 제시한다. 조이스는 불륨과 시티즌의 싸움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불륨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단일 공동체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배격한다.

III. 결 론

본고는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세계가 그의 아방가르드적인 실험성에 내포된 정치적인 의미는 고려되지 않은 채, 그의 언어실험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이스가 아일랜드 정치에 무관심한 모더니즘 작가로만 평가된 왜곡된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 했다. 비록 조이스가 유럽으로 망명하고, 에이츠를 중심으로 전개된 아일랜드의 켈트 문예부흥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이스가 쓰고 있는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모두 더블린이라는 것만을 보아도 그의 아일랜드 사랑은 극진한 것이었다. 한편 식민지 치하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산 조이스에

게 아일랜드 역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악몽의 역사”다.

조이스는 자신의 문학세계에서 자아와 타자를 평등시하며, 동양인, 유대인을 서구인, 그리스인과 동등시하였고, 여성과 남성을 평등시하고,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경계 밖 지역에 대해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동양적인 개념을 전복시켰다. 게다가 조이스는 영국인들이 민족적 우월주의에 의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타자, 열등한자, “백색의 원숭이”로 경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조이스가 중심부를 해체하고 주변부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태도는 바바가 일원화되고 획일화된 전체성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수용하려는 입장과 통한다.

식민지 주체인 스티븐과 유대인 블룸도 자신들의 식민지 상황에 갈등하고, 고뇌하며,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모색하려고 애쓴다. 스티븐은 정복자를 상징하는 헤인즈, 또 정복자들의 가치관을 모방하고, 내면화하는 친영파인 디지 교장, 아일랜드 민족으로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며 동족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멀리건, 과거지향적이며, 편협한 아일랜드 국수주의자들에 반대한다. 한편 조이스가 식민지 상황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시킨 유대인 블룸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조차 타자로서 분류되어 고통받는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영국인들을 흉내내서 반유대주의와 반여성적인 태도로 블룸을 배타시한다. 그러나 블룸은 양가병존적인 가치관으로 편협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대처한다. 조이스는 탈식민주의 주체인 블룸을 설정하여 그의 포스트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조이스는 지배자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응시로 식민지 지배자의 자기중심주의를 와해시키는데서 탈식민주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조이스가 꿈꾸는 탈식민주의 사회는 국가와 민족, 종교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양성화된 사회를 만들고, 사랑과 평화가 지속되는 사회이다.

(성균관대)

인용 문헌

- 김종건(역). {율리시즈} 1권-3권. 서울: 범우사, 1988.
- Joyce, James.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Vintage Books, 1986.
- _____. *The Critical Writing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59.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Ed. Stuart Gilbert. London: Faber & Faber, 1957.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Routledge, 1989.
- Bhabha, Homi K. *Nation and Narration*. London: Routledge, 1990.
- _____.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Choi, Seokmoo, "James Joyce and Deanglicization: A Postcolonial Study of *Ulysses*." Ph. D.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1998.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 P., 1995.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Ellmann, Richard. *The Conscious of Joyce*. London: Faber & Faber, 1977.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Weidenfeld, 1963.
- _____. *Black Skin and White Masks*. London: Pluto Press, 1993.
- Gifford, Don.& Robert J. Seidman.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otes for Joyce*.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74.
- Goldberg, S. L. *The Classical Temper: A Study of James Joyce's Ulysses*. London: Chatto and Windus, 1961.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5.
- Said Edward W.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 Spoo, Robert. "History and Story in James Joyce's *Ulyss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rinceton, 1986.
- Thornton, Weldon. *Allusions in Ulysses*.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ress, 1968.
- Yong, Robert.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New York: Routledge, 1990.

Abstract

The Identity Quest of the Colonized Subject: Focusing on James Joyce's Perspective on (Post)Colonial Culture

Sung Hi Jung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various identity quests of the colonized subject, focusing on James Joyce's perspective on (post)colonial culture which resists any exclusive essentialism based on racial and sexual binary opposition. James Joyce tried to examine the hegemonic structure of imperialism in Ireland. Furthermore, Joyce described the dispossessed experiences of the colonized subjects, struggling against national and racial oppression in his works.

In the introduction I examine how Joyce's works have been received by the Joyce critics. Most Critics of New Criticism and Marxist Criticism considered Joyce as an apolitical modernist writer who was only interested in textual experiments and the narrative techniques. But, this article indicates that Joyce should be considered as a postcolonial writer who was concerned with the political issues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culture for his country. In colonized Ireland, the oppressed subjects often mimic the oppressor and internalize the oppressor's idea and culture. But, Stephen Dedalus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tried to escape from the situation of the paralysis. In the end of the *Portrait*, Stephen declares *non serviam* against the societal nets that entrap him.

The second part of article is to examine the various quests of the subjects. The main characters of *Ulysses* — Stephen Dedalus, Leopold Bloom—tried to investigate their way of resistance against the imperial authority. Stephen, who thinks he is a servant of both English imperialism and Roman Catholicism, rejects Mr. Deasy's political pro-Unionism, historical determinism, and racial anti-semitism. Bloom, who always interested in cultural differences and parallel

perspective, extends his own imagination beyond the monologic limitation of rigid nationalism.

Therefore, in his work Joyce supports a tolerant society of “universal brotherhood” which is not fractured by a exclusive allegiance to language, religion, of nationality. Joyce tried to suggest the postcolonial world where everyone is treated equally beyond racial, religious, sexual differences.

■ 주제어 : 아방가르드적 실험성, 탈정치적, 식민지 하위주체, 타자, 정체성 분열, 양가병존적 가치관, 흥내내기, 반유대주의, 양성화